

## 기억과 색의 순환

나는 기억과 색의 순환을 통해 동서양의 통섭을 이야기한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두루 체험한 나는 기억을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색의 초월성과 생명력을 체험한다. 나의 기억 속에서 색은 그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나에게 색은 기억이 숨쉬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다.

나는 작품에서 동양, 특히 중국과 터키의 산수화, 서양의 근간이 되어온 기하학적 원근법과 현대 추상표현주의 기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동양 문명의 태초색인 황색과 빨강 그리고 서양의 근간이 되어왔던 절대색인 검정색과 흰색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동서양의 융합을 실험한다. 동양과 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색을 다양한 각도에서 원근법을 적용시켜 색체의 생명체들이 숨을 쉬듯 순환 과정을 표현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재현 회화가 갖는 원근법과는 달리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기억을 표현하는 원근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 명확히 차별화된다.

테크닉적인 면에서 나는 기억을 색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써 Sand Paper와 Masking tape를 사용한다. Sand Paper는 오일페인팅으로 채색한 풍경을 조심스럽게 색을 긁을 때 사용하며, masking tape는 기억의 파편화를 영토화시킬 때 사용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우연성에 바탕을 둔 행위로 기억과 색의 자유로운 순환을 환기시키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나는 기억 속에서 색이 갖는 초월적 생명력의 탐구를 통해 동양과 서양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색의 언어를 발견한다.